



보도시점 2024. 6. 30.(일) 11:00
7. 1.(월) 조간

배포 2024. 6. 28.(금) 16:00

내가 받을수 있는 농업보조금!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농업이(e)지 원패스’ 체험 서비스 시작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스마트폰으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확인·관리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농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안내받는 체험 서비스를 7월 15일(월)부터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2026년까지 공무원 중심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농업인 등 수요자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로 개편하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농업이(e)지’ 구축을 추진중이며 농업인이 맞춤형으로 농업 보조금지원 사업을 안내받고 방문 및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농업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이(e)지 원패스’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7월에는 정보화기기에 취약한 농업인들이 농업이(e)지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으로 ‘농업이(e)지 원패스’ 체험 서비스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 후 개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체험 서비스는 2024년 12월 1단계 개통에 앞서 농업인이 사전에 ‘농업이(e)지 원패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추가되는 온라인 사업 신청,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변경 신청 등의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농업이(e)지 누리집(www.nongupez.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를 거쳐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업이(e)지 시스템의 안정적인 도입과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마을 단위로 현장에서 농업이(e)지 활용 방법을 교육하고 밀착 지원하는 ‘농업이(e)지 쌤’을 양성하여 농업인 대상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농업인이 농업이(e)지를 통해 본인의 농업경영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면 정부가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누락없이 촘촘하게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디지털 서비스 접근 및 활용에 취약한 고령의 농업인도 농업이(e)지 활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농업이(e)지 원패스’ 포털 서비스 개요
- 2. 농업이(e)지 활용 교육 추진 개요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	책임자	과 장	손경자 (044-201-1161)
		담당자	사무관	권만재 (044-201-1176)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목적

- 농업인이 농식품 사업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능형 알고리즘을 적용한 농업인 맞춤형 포털시스템 구축

□ 주요 서비스

◇ 사업안내부터 신청, 사후관리까지 온라인(PC, 모바일)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맞춤형·비대면·종이서류 없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오픈

- (포털 서비스) 정부·공공기관이 각기 운영 중인 여러 농식품 사업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 강화
 - * 농식품 사업 지원 대상 농지·농업인 등 자격요건, 신청 기간, 지원 기준, 지급단가 등
- (맞춤 서비스)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사업 추천 서비스 제공
 - 신청 대상자 데이터와 각 사업별 자격요건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신청 가능한 농식품 사업 정보를 자동 추천
- (신청 서비스) 농업 마스터 정보와 타 기관 연계정보*를 기반으로 방문이나 종이서류 작성 없이 사업 신청 및 증빙서류 전송 기능 제공
 - *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소득정보(국세청), 토지대장(국토부), 교육이수정보(지자체, 농정원 등)
- (지도 서비스) 공간정보(GIS)를 기반으로, 농식품 사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융합하여 사업 수혜 대상 농업인·농지 정보가 기재된 지도 제공
- (알림 서비스) 농식품 사업 안내 및 진행단계 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다채널* 알림 서비스 구축
 - * 온라인(SMS, LMS, MMS, E-mail, 알림톡, 전화 등) / 오프라인(우편·등기 등)

□ 향후 일정

- (1차) 체험서비스('24.7) → (2차) 농림사업안내 및 맞춤서비스('24.12) → (3차) 비대면, 종이서류 제출 없는 사업신청('26.1~)

- **(배경)** 농업인이 새롭게 도입되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농업e지)'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체험 서비스를 이용 교육 추진
- **(대상지역)** 시군 지역 ※ 수혜자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교육목적)** 농업인이 직접 '농업e지' 시스템에 접속(인증 등)하여 본인 농업경영체 정보를 확인하고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
- **(교육내용)** 이론 및 실습 교육으로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
 - **(이론교육)** 고령 농업인 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버전(30초, 4분, 10분 등)의 시연 중심 동영상 및 유인물 등 활용
 - **(실습교육)** 맞춤형 안내서비스 개통(24.12월) 전에 스마트폰 또는 PC로 '농업e지' 체험 서비스에 로그인(인증)하여 본인 농업경영체 정보 등 확인
- **(교육방법)** 마을강사(농업e지 쌤*)를 양성하여 현장에서 농업e지 쌤 등이 '농업e지' 이용 방법 등을 농업인에게 교육하거나 전파
 - **(마을강사 양성)** '농업e지' 교육 및 수료를 통해 "농업e지 쌤" 양성

* **(농업e지 쌤)** 정보화 교육 접근 및 '농업e지' 시스템의 이용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업e지를 이용하여 정보조회 및 신청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마을 등 현장에서 교육 등을 통해 지원하거나 농업e지를 전파하는 마을강사(튜터, 도우미 등)

* **(대상)** 이통장, 청년농 등 디지털 능력이 되거나 교육 가능한 자로 시군에서 선정

- 시군(읍면동)에서 타 교육 등 연계하여 '농업e지' 교육
- 농업교육포털(농정원) 등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 **(농업인 교육)** 농업e지 쌤, 공무원 등이 마을 등 현장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에 대해 '농업e지' 체험 교육 실시
 - 농업e지 쌤이 마을 등 현장에서 농업인을 교육하는 경우 시군 등에서 강사비 등 지원(일정조건 충족하는 경우)

* 시군 대상으로 교육사업 수요조사 진행하여 사업 추진(7~12월)